

니-체와 現代文化

그의 誕生日을 記念하야(一)

金亨俊

오늘 十月 五日은 『超人』思想으로서 有名한 프리드리히·빌헬름·니-체(1444 - 1900)가 誕生한지 九十三週年이 되는 記念日이다. 니-체처럼 生前에 理解되지 못하고 死後에야 有名해진 사람은 아마 업슬 것이다. 그는 누구보담도 眞理를 探求하는 熱情과 精力을 所有하였스며 稀世의 天才的 機能을 發揮했건만 當時의 사람들은 그를 理解하기는 姑捨하고 오히려 冷笑와 嘲弄을 퍼부엿슬 뿐이였다. 그가 精神病이 發作되기 二年前에 自己의 妹弟에게 보낸 片紙 가운데 『사랑스러운 獨逸人은 十五年 間에 나의 十二 著書의 어느 것을 正當히 根本적으로 批評한 일이 업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가 學界에서 얼마나 默殺되어 왔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는 自己의 著書를 大體로 自費出版하였으나 “짜라투스트라”라는 七冊을 友人에게 贈呈하였슬 뿐인 現狀이였다. 그의 生前에 그를 理解한 사람은 아무도 업섯다. 一八八八年에 겨우 外國人 한사람의 理解者를 어덧스니 코-펜하겐大學 教授 게을그부란데스가 『獨逸哲學者 프리드리히·니-체에 對하야』講議를 하야 三百名 以上の 聽衆으로 盛況을 모하였다는 新聞報道를 接하고서 그는 비로소 現在의 孤獨을 未來에의 後光에 對한 信念으로서 感口했든 것이다.

그러나 이러케도 同時代人에게 理解되지못하든 니-체가 이 世上에서 潛跡하게 되자 그의 죽엄과 함께 만흔 理解者 追隨者를 엇게되어 一世紀의 三分의 一을 지내지 못한 동안에 니-체의 思想은 現代文化의 갈피갈피에 影響을 주지 안흔데가 업는 現象이니 人間의 運命, 더구나 한 思想家의 運命이란 奇異하다 아니할 수 업다. 爲先 大體만 살펴 보드라도 文藝方面에 잇서 二十世紀 初頭에 일어난 自然主義作家 메-멤블스, 힐레스타움트만 等の 作品背後에는 벌써 精神的으로 니-체의 影響이 숨어 들었스며 實口的스타일을 追求하는 新古典派 또는 象徴主義, 印象主義가 産業國家으로 니-체의 影響을 바덧스며 最近에 와서는 佛蘭西의 지-드, 마르셀 등이 니-체의 『權力에의 意志』

를 그들 獨特의 휴머니즘의 視角에서 發本하여 일은 바 行動文學을 創設하고 잇는 것이다.